

자족기능·균형발전·사회복지·생활밀착형 예산 집중

2019년 고양시 살림살이

2019년 예산안이 지난해 12월 12일 고양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전년보다 13.2% 증가한 2조 2909억 83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2019년 고양시 예산에 대해 알아보자.

정리 편집부

일반회계 1조 8,048억 300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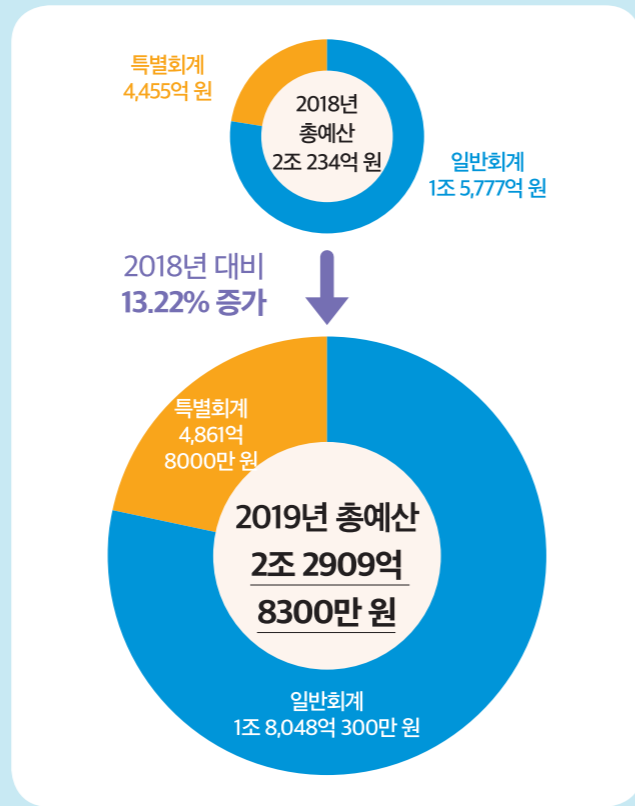
특별회계 4,861억 8000만 원

2019년 본예산은 각종 간담회를 통해 주민과 현장의 요구를 수렴하여 '시민 중심 생활밀착형 정책'에 방점을 뒀다. 특히 ▲자족기능 확대, ▲전시성·소모성 예산 감축, ▲파리기후협약 준수를 위한 친환경 사업과 녹지 공간 확대, ▲지역 균형발전과 사회적 약자 배려, ▲도서관 건립과 평생학습관 건립을 통한 지식기반 예산 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2019년 예산 편성 주요 내용

① '자족기능' 확대

주요예산으로는 대도시 특례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등 2억 원, 고양페이 도입 1억 7천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출연금 10억 원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7억 원을 예산 반영했다. 장기적 사업인 고양형 스마트시티 조성 7억 2천만 원, 드론센터 건립 37억 8천만 원, 기업이주시설 건립 1억 원, 청년 창업지원센터 건립 7억 2천만 원,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24억 원 등을 편성하여 실질적인 동력 확보에 집중했다.



② 전시성 사업 대신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전시성 행사 예산을 전년도 125억 원에서 33.6%를 감액한 83억 원으로 편성했다. 획일적인 기존 마을축제를 공모제로 전환해 특색 있는 고양시 대표 축제로 육성할 계획이다. 대신 시민 생활과 최접점에 있는 3개 구청의 예산은 전년도 대비 17% 증가한 5,268억 원으로 편성, 주민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했다. 공공와이파이 구축 1억 5천만 원, 야외그늘막 설치 2억 원, 고양형 누리버스 운영 7억 원 등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을 중점 반영했다.

③ 모든 세대가 만족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복지'

전체 예산의 37%인 8,472억 원을 복지예산으로 편성했다. 고봉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23억, 내유동커뮤니티센터에 4억 5천만 원을 편성해 균형복지를 도모한다.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 확대 운영 및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에 26억 9천만 원을 편성해 장애인 가족의 고충도 해소하고자 했다. 또 어르신 복지수요 대응을 위해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 7천만 원,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치매조기 검진사업 2억 원 등을 편성했다. 이 외에도 저출산 대응을 위해 출산지원금 11억 원,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30억 원, 여성커뮤니티센터 5억 1천만 원 등을 편성해 출산부터 보육까지 폭넓은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한편, 청년배당 152억 원, 청년과 신혼부부 등 사회적 주택공급사업 10억 원을 배정해 청년복지에도 집중했다.

④ 개발보다 보전 파리기후협약 준수를 위한 환경정책

이례적으로 환경보호 분야에 4,110억 원을 배정해 고양시 실정에 맞는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대응 예산도 강화한다. 주요 추진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및 미니태양광사업,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태양광발전설비 등이다. 또한 녹지 보존 및 확대를 위한 예산인 한강하구 생태역사 관광벨트 구축 4억 5천만 원, 일산문화광장과 호수공원을 잇는 녹지축 조성 4억 5천만 원, 도시숲 리모델링 25억 5천만 원,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 7억 5천만 원, 장항습지 람사르 등록 추진원 5억 원 등을 편성했으며 공원조성 재원 확보를 위해 공유임야특별회계 100억 원을 조성했다.

⑤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지식기반사업으로 도서관 리모델링 12억 6천만 원, 도서관 건립(고양, 일산) 22억 9천만 원, 평생학습관 건립에 5억 8천만 원, 도서 등 자료구입도 21억 원을 편성했다. 미래의 희망인 학생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실내체육관 8개소 신축 31억 원, 시설개선 40개소 38억 원,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 운영 129억 원, 중고생 신입생 교복구입비 42억 원을 지원한다.

⑥ '균형발전'을 통한 소외지역 해소

슬럼화된 지역의 도시재생을 위해 도시재생사업 112억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18억을 조성했다. 또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 15억 원, LPG소형탱크 보급 5억 원 등도 편성했다. 특히 2035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수립 3억 원, 59개 GB해제 취약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2억 원,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9억 원 등 장기적인 균형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2019년 주민참여예산 주요사업

(총 51개 사업, 4,415,887천 원)

사업명	사업예산 (단위: 천 원)
중부대 인근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	1,508,455
공릉천 생태공원 조성	130,000
오금동 다목적체육시설 (풋살경기장) 보완 및 운동기구 설치	156,000
강촌로 (백신중 일원) 보행환경 개선	80,000
탄현마을 12, 15단지 일원 보도환경 개선	210,000
무원1·2단지·소만7단지 보도환경 개선	300,000
아외 그늘막 설치 (파라솔형)	200,000
어린이공원 조성 - 도화공원	350,000
가좌천 산책로 조성	260,000

2019년 고양시 부분별 예산

구분	예산액(단위: 천 원)	구성비
일반공공행정	107,313,728	4.68%
공공질서 및 안전	23,883,164	1.04%
교육	58,410,458	2.55%
문화 및 관광	87,326,687	3.81%
환경보호	411,023,304	17.94%
사회복지	847,193,277	36.98%
보건	43,108,174	1.88%
농림해양수산	64,356,797	2.81%
산업·중소기업	67,400,307	2.94%
수송 및 교통	175,447,288	7.66%
국토 및 지역개발	104,633,098	4.57%
예비비	22,482,774	0.98%
기타	278,404,217	12.15%